

목요일론



양상철
융합서예술가·문화칼럼니스트

예술의 탄생과 발전은 사회 환경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다. 오늘날 서예가 놓인 문화와 환경은 과거 한자를 사용하던 전통사회와 비교할 수가 없다. 전통서예는 과거시대 뛰어난 서예가들이 달성한 경지의 아름다움을 재현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은 정지되는 게 아니라 시대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므로, 이 시대에 맞는 철학과 새로운 경험으로 서예를 재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서예술의 진화, 보는 서예

넓은 것은 버리고 세것을 받아들여, 끝없이 발전해온 예술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부정(否定)의 방식을 통해 구축해 왔던 미술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쉽게 달라지고 있다. 근대 추상미술도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감상이 불가능해, 급기야 대중문화의 보편성을 끌어들이었다. 모든 예술이 장르를 불문하고 현대의 예술이 되기 위해 대중과 호흡하며 시대성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서예라고 해서 상황인식이 다를 수 없다. 지금은 '우리시대에 맞게 서예의 시대성(時代性)을 어떻게 찾느냐'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의식 있는 서예가는 '옛 것과 지금의 것', '동양의 것과 서양의 것' 사이를 배회하고 탐색하는 일이 많아졌다. 서예사를 통틀어 오늘날처럼 서예의 현

대화를 갈망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추미(醜美)의 도입으로 글씨도 '고와야 아름답다'는 관념이 바뀐지가 오래됐다. 글씨를 보는 미적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자유분방한 파필획(破筆劃)도 허용되고, 색채의 사용도 일반화 됐다. 좀 더 실험적인 작가는 지필묵(紙筆墨)의 제한을 넘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직관(直觀)과 상상력을 위해 서예에 회화를 차용하고, 글씨와 그림의 이미지를 혼합하는 경향도 있다. 정돈된 문자의 나열이 주는 반복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서화(書畵)의 경계를 찾아 문자의 상형을 탐색하기도 하고, 회화적 표현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 일체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한 예술은 사상과 감정,

표현과 전달 방식이 달라 다원화돼 있다. 서예도 서양의 미술 등 타 장르 예술과 심미적 특성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현대서예(現代書藝)를 지향하는 시각이 전통에 대한 반발이어서는 안 된다. 전통과 고전을 수용하되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문자 조형예술로서 서예를 인식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다. "글씨는 그림의 뜻으로 표현하고, 그림은 글씨의 뜻으로 수용된다"는 명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주종(主從)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역설적이지만 서예의 본질이 필선(筆線)에 있다면, 서예가가 '그린 글씨'도 서예고, 서예가가 '쓴 그림'도 서예라고 봐야한다. 이는 관념의 문제이며 선택하는 자의 몫이다. 현대서예의 진화를 희망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기다린다.

사설

제주4·3의 역사 재정립하는 새로운 전기

제주4·3의 역사가 서술된 한국사 교과서가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된다. 그동안 모든 교과서에 '폭동'으로 규정됐던 제주4·3을 객관적으로 담아낸 교과서가 발간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청소년 세대가 4·3의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발간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8종)는 제주4·3을 8·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다뤘다.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제주4·3을 한국전쟁 이전의 역사로 기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4·3이 정부 수립에 반대한 폭동이 아니라 좌우 대립의 소요사태 등으로 규정되면서 교과서 편찬 때마다 4·3 왜곡·폄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4·3 서술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반영됐기 때문

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7년 '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4·3의 집필기준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집필기준을 반영하도록 계속 요청한 결과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가 나온 것입니다. 새 한국사 교과서 발간으로 제주4·3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점철됐던 4·3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가 새 교과서를 통해 4·3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인데도 4·3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4·3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설문조사도 지난 3월에 나온 바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제주도민은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반영됐기 때문

정부·도 감귤가격 안정 지원대책 확대해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가격 안정을 위한 제주도의 시장격리사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감귤가격 회복을 위해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만큼 감귤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감귤은 제주도가 상품 감귤까지 시장격리 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설 정도로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도는 지난 16일 감귤수급 조절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하고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도매시장 감귤가격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L 규격의 감귤 2만t에 대해 시장격리하고 가공용으로 처리하도록 처방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60억 원 중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소비촉진과 감귤가격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거래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감귤 5kg 1상자당 생산비는 유통비용을 포함 4800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가 공개한 농협가락공판장 등 서울 지역 4개 도매시장의 17일 평균 경락가격은 5kg당 4600원에서 6000원까지 평균 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일부는 생산비도 안되는 4600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자칫 농가는 생산비도 감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노지감귤은 지난해보다 수확시기가 늦어지면서 연말연초에 출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가격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시장격리 대책이 강화돼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비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귤 대책이 나와줘야 할 것입니다.

뉴스-in

심기불편 도의회 향해 유감 표적하며 해명

지역현안사업 도 입장 발표 ○...제주도가 지난 16일 원희룡 지사의 '의원 재량사업비' 발언을 놓고 심기가 불편한 도의회를 향해 유감의 뜻을 표적하며 확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지역현안사업 관련 도의 입장'을 통해 예산편성과 관련 투명성과 절차성을 확보하는데 함께 해준 데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의회와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 발언의 진의였다고 해명. 이어 도의회와 계속 협력하고, 의사전달과정의 논란에 대해 도의회 의원과 도민 들에게 거듭 유감의 뜻을 표명. 조상윤기자

비례대표 30석에 대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는 석패율제 도입이 골자. 민주당이 합의를 받아들여 분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미현기자

착한가격업소 사례 '우수상'

○...제주시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정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눈길. 시는 지난 12일 경북 포항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2회 착한가격업소 제도정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2차까지 올라온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상을 수상해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론 낼까

○...야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이 18일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 합의안은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편집국 25시

아이를 위한 어른의 자세



김지은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jiejun@halla.com

교 현장의 목소리다. 아이는 마음의 병을 키우고 있는데, 가정에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지기도 했다. 자해로 '위키 싹'을 보내도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 뿐이거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 위험이 높게 나타나자 도리어 혼이 났다. 부모에게 돌아온 말은 뭐가 그리 힘든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아픈 속을 드러내 보일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가정으로 돌려선 안된다. 부모의 정신 건강,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는 탓이다. 사회적 낙인과 맞닿아있는 탓이다. 사회적 낙인이 우려돼 상담·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가정 내 관계 불만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어릴 때부터 '괜찮아', '할 수 있어', '못해도 돼'처럼 사랑으로 품어줘 봐요. 그렇게 아이들의 길을 찾아줬다면 지금보다 덜 힘들지 않았을까요.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아이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한 상담교사의 말이 '어른들'의 마음에 꽃힐 듯하다.

교 현장의 목소리다. 아이는 마음의 병을 키우고 있는데, 가정에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지기도 했다. 자해로 '위키 싹'을 보내도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 뿐이거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 위험이 높게 나타나자 도리어 혼이 났다. 부모에게 돌아온 말은 뭐가 그리 힘든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아픈 속을 드러내 보일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가정으로 돌려선 안된다. 부모의 정신 건강,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는 탓이다. 사회적 낙인과 맞닿아있는 탓이다. 사회적 낙인이 우려돼 상담·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가정 내 관계 불만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어릴 때부터 '괜찮아', '할 수 있어', '못해도 돼'처럼 사랑으로 품어줘 봐요. 그렇게 아이들의 길을 찾아줬다면 지금보다 덜 힘들지 않았을까요.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아이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한 상담교사의 말이 '어른들'의 마음에 꽃힐 듯하다.

부고
김태익(前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어머니 남평문씨 경년(향년 90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18일 14시 40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19일(목)
▶발인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층
▶장 차: 대정읍 신도리 가족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씨 김무공파 영석(향년 6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19일
부인 김효숙(당부아)
아들 김희찬
딸 김은지(당부아)
사위 김영우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씨 병하(향년 8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19일
부인 유국행
아들 김주신, 며느리 신경자
딸 김숙자, 사위 장성익
장자 김자연, 양며느리 강지만
차자 정자, 양며느리 양이섭
소문 양정현
음미 정현섭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정순(안나향년 9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19일
아들 김태영, 태진
며느리 임철실
딸 김은희, 김문희
김영자, 미자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주식회사 디에스에너지(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현우(이하 "을"이라 한다)는 2019년 12월 18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과 분할된부분의 권리유무는 "을"이 승계되고, 분할 재정의의 99%에 의하여 을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내로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의 종류: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주-0088)
2019년 12월 19일
"갑" 주식회사 디에스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40, 301호 (일도이동 인화(에코비치) 사내)이사 고대선
"을" 주식회사 현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와4길 20, 다동 비102호 (영림동, 영림유원지) 대표이사 오은주 대표이사 현상수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학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